

장흥 편백숲·장성 황룡강 '빛의 유혹'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억불산 정상 야간 경관 조성 추진...체류형 관광지 박차

장흥군이 편백숲 우드랜드부터 억불산 정상까지 야간 경관 조성을 추진한다.

장흥군은 총사업비 60억원 규모 '장남진 편백숲 빛의 정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연말까지 총예산의 15% 비중인 9억원을 들여 1차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뒤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같은 달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용역에는 3800만원이 소요된다.

지난 2009년 조성된 장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14년 동안 600만 관람객이 찾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장흥군은 우드랜드 입구부터 숙박시설, 전시관 등을 거쳐 억불산 정상까지 야간 경관을 조성해 주·야간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이달 초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부군수,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간경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5개 공간을 나눠 연차별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성하고 발전 방향을 세울 것인지도 논의했다.

또 장흥의 상징인 '머느리 바위'에 착안한 '머느리 바위에 스며들다'라는 주제의 야간 경관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억불산 중턱에는 어린 아이를 업은 머느리 형상의 바위에 얽힌 전설이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편백숲 환경을 보전하고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에너지 절감 방법 등



장흥군은 억불산 편백숲 우드랜드에 '머느리'를 소재로 한 대형 야간 조형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형물 구상도. <장흥군 제공>

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장흥군은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가이드라인(업무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야간경관과 장흥군 슬로시티

를 접목해 우드랜드 가치를 보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 황룡강 문화대교 야간 조명 설치



100억 송이 봄꽃이 피어나는 장성 황룡강이 야경까지 한층 개선했다. 최근 황룡강 문화대교 야간 조명 설치공사가 마무리돼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2006년 준공된 문화대교는 길이 182.5m, 너비 21m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애용하고 있다. 장성읍시가지와 황룡강 건너편 문화예술회관, 흥길동체육관, 군립중앙도서관, 멜로우시티 스타디움 등 주요 문화체육시설을 연결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 귀농학교, 농기계 실습교육 진행

장성군 귀농학교가 농업기초과정으로 농작업 안전교육, 농기계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은 신규 귀농인과 귀농 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했다. 귀농 준비 마음이 잡히기 전부터 본격적인 창업에 이르기까지 초보 농업인을 위한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번 과정은 농작업 안전 강의로 시작했다. 농업 인회관 강의실에서 기초지식을 습득한 교육생들은 야외 운전실습장으로 이동해 실습에 참가했다.

기기를 직접 작동하면서 농기계 기종별 조작법

과 활용법, 관리법 등을 익힐 수 있어 초보 농업인들에게 유용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농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특히 농기계 안전 사용법이 유익했다"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정착을 구체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진드기 조심하세요

담양군 감염병 예방 홍보

담양군이 봄철 농작업 및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며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민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에 나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노출된 피부를 물어 발열, 근육통, 발진 등 증상을 보이는 쯤쯤가무시증과 고열, 오심, 구토,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 증상까지 보이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있다.

담양군의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도 최근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작년 기준 31명이 발생했으며, 주로 60세 이상 농업, 텃밭작업 등 야외활동자가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SFTS는 개나 고양이 등에 감염된 후 체액, 타액으로 인해 사람에게 2차 감염위험도 있고, 치사율도 약 20%로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시 긴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시키고, 2~3시간마다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활동 후에는 물린 부위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피복 목욕 및 세탁 철저히 하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나주시,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

민선8기 공약사업 속도...“620곳 올해 안에 완료”

나주시가 노인들의 주생활 공간인 마을회관·경로당의 입식 테이블과 의자 보급에 속도를 낸다.

나주시는 올해 마을회관·경로당 620곳에 대해 입식 테이블, 의자 보급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 주민의 관절건강과 식사·여가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발굴했다.

시는 당초 2025년까지 4년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마을 회관·경로당 115곳에 대한 보급을 완료했다.

마을별 이용 만족도가 높고 호평이 이어지면서 시는 고령 주민의 건강, 편의, 마을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조기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 4억원을 편성, 마을회관·경로당 나머지 505곳에 대한 입식 테이블, 의자를 보급할 방침이다. 이용 편의와 안전성 제고,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볍고 튼튼한 접이형 테이블을 선정 보급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조속히 마을회관, 경로당 입식테이블 보급을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세대·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자산규모 1조4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